

충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수수로 할인과 함께 오사카 여행의 영웅까지

오사카 거래소 런칭 기념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할인 이벤트

신한금융투자

오사카 거래소 런칭 기념 해외파생 신규고객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선물, 옵션 상품 매매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기념해 '해외파생 신규고객 웰컴!'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오사카 거래소의 선물, 옵션 종목을 매매할 경우 정액수수료 상품은 계약당 200엔(기본 600엔), 정률 수수료 상품은 계약당 0.3%(기본 0.5%)의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오사카 거래소의 파생 상품을 100계약, 200계약, 300계약을 거래한 고객 선착순 각각 1명씩에게 오사카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중년고객 대상 -7/31

신용대출 이자 90일간 0원 (15만원 한도)

3년간 무조건 4.9%

주식 수수료 100년 무료

(온라인, 상속, 유언기관 제비용 제외)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고객 90일 신용·대출 이자지원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90일간 신용·대출 이자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내용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휴면포함)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신용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90일간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실행일부터 30일 단위로 지원하고 3회까지 총 90일간 실제 발생한 이자와 최대지원 이자 중 낮은 금액을 사후 계좌로 입금해 준다. 30일간 최대지원한도는 5만원으로 90일간 총 15만원까지 가능하다.

주식수수료 100년 무료와 신용·대출 3년간 연 4.9% 적용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손업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거래 시 카카오페이 캐시 지급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주식 계좌개설 및 거래 이벤트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생애 첫 이베스트투자증권 비대면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전원에게 카카오페이 앱에서 영화, 웹툰, 베스트 셀러 등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1만 캐시가 지급된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중 개설된 계좌로 100만원 이상 주식 매매 시 2만 캐시가 추가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주식 매매수수료 1년 무료(유관기관 수수료 제외) 또한 계좌 개설 즉시 적용 된다. /손업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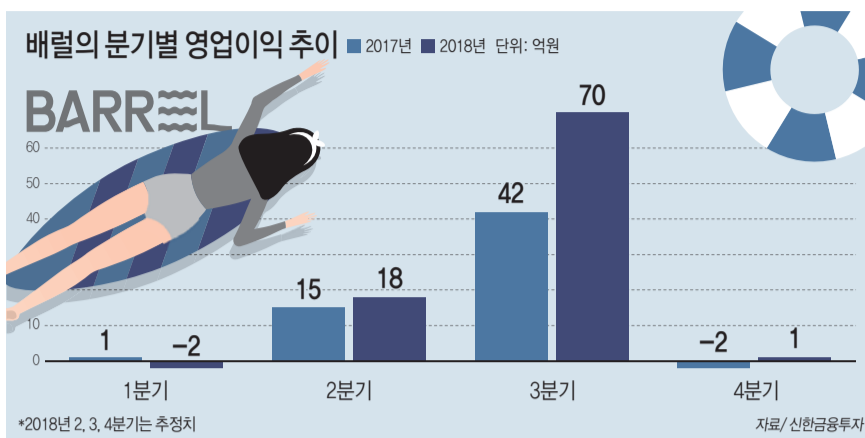
때이른 더위타고 증시 달구는 여름株 'HOT'

워라벨 맞물려 여행·항공株 기대 배럴·제주항공 등 수혜주 반등 시작

일찍 찾아온 무더위 만큼 여름 수혜주의 상승세도 뜨겁다. 특히 올 여름은 정부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삶 사이 균형)정책과 맞물려 휴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행·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

4일 주식시장에서 배럴은 전일보다 1.03% 하락했지만 최근 한달(5월1일~6월4일) 동안에만 무려 33%나 오르며 무서운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배럴은 지난 2월 1일 코스닥에 상장한 워터스포츠 의류 브랜드 업체로 여름 수혜주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여름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린 이유다.

배럴은 국내 래시가드(자외선 차단과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를 동시에 갖춘 수상 스포츠용 의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의 40%가(2017년 기준)가 래시가드에서 나온다. 때문에 배럴의 매출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다. 지난 3년간 3분기의 매출 비중은



평균 50%에 달한다.

특히 서핑 인구 증가(2014년 1.5만명→2017년 4만명), 대표적인 해수욕 휴양지인 동남아 출국자 증가(350만명→500만명)는 올해 3분기 최대 매출 달성에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김규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래시가드 매출 고성장과 실내 수영복 라인 등 신사업을 통한 카테고리 확장으로 매출 성장은 담보된 상태"라며 "실적과 주가의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인 항공, 여행주도 반등을 시작했다. 최근 유가 상승세에

도 불구하고 LCC(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제주항공은 올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는 32대로 전년보다 5대 증가했음에도 탑승률은 꾸준히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 미래에셋대우가 추정하는 올해 3분기 제주항공 영업이익은 5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유희할증료가 두 배 이상 확대됐지만 순수 티켓운임은 상승했다. 4월에도 국제선 여객수는 31% 증가하며 해외여행

수요의 둔화나 전년 실적베이스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불식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유가와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인 만큼 비용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제주항공에게 시장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항공 주가는 5월 이후 2.3% 상승했다.

아울러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관광업종 역시 3분기가 성수기로 꼽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 대비 각각 30.1%, 3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민 해외관광객 수는 223만명으로 전년(200만명) 대비 11.3%가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해외출국자 수(2600만명)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2017년과 달리 황금연휴 같은 긴 연휴가 없음에도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는 문화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많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스닥시장, 운송장비·부품 '대박'... 63.5% 상승

해덕파워웨이 등 가파른 상승세 주가 상승률 최고는 '아이리버'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운송장비·부품 업종에 투자했다면 대박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5월 30일까지 코스닥시장 업종 지수의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운송장비·부품 업종 지수가 작년 말보다 63.5% 올라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9.5%였다.

운송장비·부품 업종의 구성 종목 가운데는 해덕파워웨이가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시장 업종지수 등락률 상위 10개 현황〉

지수업종명	17.12.28		18.05.30		
	증가(p)	증가(p)	등락률 (17년말 대비)	코스닥지수 등락률 대비	코스닥지수 내 시총비중
운송장비·부품	5,474.45	8,953.24	63.5%	54.1%p	4.1%
인터넷	14,610.01	22,507.59	54.1%	44.6%p	0.9%
비금속	44,704.92	59,553.66	33.2%	23.7%p	2.1%
섬유·의류	144.12	187.03	29.8%	20.3%p	0.7%
종이·목재	6,170.12	7,843.55	27.1%	17.6%p	0.5%
일반전기전자	682.25	844.92	23.8%	14.3%p	2.0%
오락, 문화	481.72	585.89	21.6%	12.1%p	3.7%
건설	84.53	102.66	21.4%	12.0%p	1.3%
컴퓨터서비스	312.50	378.43	21.1%	11.6%p	1.0%
통신장비	2,077.49	2,481.55	19.4%	10.0%p	2.4%

등의 영향으로 331.1%나 급등했고 에스모(267.5%), 에이치엘비(250.6%) 등

도 가파르게 올랐다. 코스닥 업종 지수 중 인터넷

(54.1%), 비금속(33.2%), 섬유·의류(2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반도체(-8.6%), 방송서비스(-8.0%), 음식료·담배(-7.1%) 등은 하락했다.

전체 29개 업종 중 23개 업종 지수가 올랐고 6개 업종 지수는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업종 대표주들은 평균 11.5% 올랐으나 업종 내 시총 2위주의 상승률(15.9%)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 대표주는 아이리버(85.5%·정보기기)였다. 상상인(74.7%·컴퓨터서비스), 스튜디오드래곤(65.8%·오락문화), 셀트리온제약(53.4%·제약) 등도 상승률이 상위권에 들었다. /김문호 기자 kmh@

증시 상승세에 전업자문사 순이익 985억 한화자산운용, JP모간 30개 펀드 이관 운용

순이익 전년비 183.9% 증가 100개사 흑자·75개사 적자

증시 상승세에 전업자문사들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 사업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175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9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9% 증가했다.

코스피가 지난 3월 2440선까지 상승하면서 고유재산 운용이익이 늘었고, 성과보수로 수수료수익도 증가했다. 고유재산 운용이익 1147억원, 수수료수익 1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2%, 15.3% 늘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7.0%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100개사는 흑자인 반면 75개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적자회사 비율

은 42.9%로 전년 대비 15.8%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상위 10개사가 전체 투자자문사 당기순이익의 85%를 차지하는 등 중소형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일임·자문)는 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15.8% 감소했다. 대형사인 모니스타투자자문이 폐업하면서 자문 계약고가 다소 줄었고, 일임계약고는 일부 투자자문사의 전문사모운용사로의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문사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고유재산 운용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투자자문·일임 계약고는 감소, 정체상태에 있다"며 "운용자산 추이나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자산운용은 4일 JP모간자산운용 코리아가 운용하던 17개 전략 30개 펀드를 이관 받아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관 규모는 4935억원(5월 25일 기준)으로 주요 펀드의 새로운 펀드명은 ▲한화글로벌메트로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형) ▲한화글로벌메트로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채권) 등이다.

펀드이관은 작년 12월 소규모 분할합병 계약 체결 후 펀드운용의 연속성과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TP팀)을 두고 6개월간 면밀히 준비했다.

특히 글로벌메트로와 글로벌메트로펀드는 한화자산운용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자산배분형 펀드다. 기존의 멀티에셋크루즈5.0 펀드가 보수적 자산배분 전략에 집중했다면, 글로벌메트

로 펀드는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글로벌메트로펀드는 높은 현금흐름에 집중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한다.

한화운용 관계자는 "낮은 채권 기대수익률, 글로벌경제 회복세 가시화 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상향되고 있으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시장 변동성 증가로 투자자 선택이 어려운 시기이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자산배분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관 펀드는 운용의 안정성·연속성·전문성을 위해 한화운용 글로벌자산배분팀, 해외주식전략운용팀, 해외채권전략운용팀이 펀드 성격에 맞게 각각 관리한다. 이관 펀드 모두 기존과 변함없이 JP모간자산운용(JPMAM)의 역의 펀드로 투자되거나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 계열사에게 위탁운용 된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